

지철 스님의 도상(圖像)을 통해 본 상징과 은유

달마의 눈꺼풀서 차나무 자랐으니

절로도해도(折蘆渡海圖)

달마 대사는 중국 선종(禪宗)의 시조이자 부처님 이후 28대인 보리달마(菩提達摩)이다. 5세기경 남인도 왕자국(마두라스)의 왕자로서 어린 나이에 출가해서 반야다라존자(般若多羅)에게 불법을 배우고 선을 신앙하고, 스승의 지시에 따라 선법을 전하고자 중국으로 왔다고 전한다.

달마 대사가 중국 땅에 온 시기는 남북조시대인 양(梁)나라 무제(武帝) 연간(520년)이라는 설이 가장 유력하다. 중국에 들어 온 경로는 광저우[廣州] 또는 서역통로라는 설이 있으나 확실치 않다.

달마 대사가 중국에 들어온 시기는 이미 불교가 융성한 시대여서 양나라 무제는 수많은 절과 불탑을 쌓고, 많은 승려들을 출가시켜, 중국의 불교발전에 큰 공헌을 한 이후였다. 달마 대사가 인도로부터 입국하자 양무제는 자신이 지은 공덕을 자랑하면서, 그 공덕이 얼마나 큰지 물었다. 거기에 달마 대사는 “공덕이 전혀 없다”고 일갈했다.



김홍도의 '절로도해도'

의 도행(道行)을 존경해서 직접 '달마절로도강도'와 보현육아백상도(普賢六牙白象圖)를 그려줬다는 기록이 동문선(東文選)에 있다고 한다.

또 이규보(李奎報)의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에도 달마화상과 달마대사상에 대한 자료가 나타나고 있어, 이 시대에도 달마도가 성행했음을 알 수 있다. 또 사명 대사가 달마도를 그렸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다.

여기 소개하는 절로도해도는 한국 최고의 고화소장자인 간송미술관(簡松美術館)에 소장된 세로 105.5cm에 가로 58.3cm 크기의 장지에 단아하게 그려진 단원 김홍도(金弘道)의 작품이다.

기백과 힘 있는 필선으로 표현을 초월해서 활발(活潑)한 선기(禪氣)를 보여주는 김명국(金明國)의 그림처럼 묵선이 대상(對象)의 윤곽을 묘사하면서, 마치 사자후(獅子吼)처럼 보는 사람의 귀와 눈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조선의 선비처럼 유려한 얼굴의 선과 지성(知性)이 빛나는 눈을 지닌, 담담하면서도 기백 있게 두 가지의 갈래에서 서서 화면을 지배하고 있는 그림이다.

오른쪽 어깨에서 왼쪽 허리 아래로 뒤에 바람을 매고 있는 줄을 띠고, 갈대가지까지 이르는 두 가닥의 매듭이 보이면서, 두 손을 맞잡고 바람을 가르면서 바다를 건너는 모습은 얼핏보면, 깊은 상념 속에서 미래의 불법을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다.

단원의 그림에선 달마의 눈썹이 짙으면서도 힘 있게 그려져 있는데, 일설(一說)에 의하면, 달마 대사는 선정에 들어 좌선하다가 잠들어 버린 것에 화가 나서, 눈꺼풀을 잘라내 버렸는데, 그 눈꺼풀에서 차나무가 자라났다고 한다.

수행하는 우리 모두 그 찾았을 따서 한 잔의 차를 마시면서, 간화선의 범맥을 이으면 어떨까 한다.



동화사 포교국장

인도서 중국으로 법 전했던 달마 양나라 무제 물음에 선기로 응대 왕의 미움 받아 죽임을 당했으나 유유자적하게 왔던 인도로 돌아가

이에 기분이 상한 양무제는 달마 대사에겐 은밀히 자객을 보내 죽인 후, 웅이산(熊耳山)에 묻었다고 한다. 그런데 송운(宋雲)이 서역에 사신으로 다녀오다가, 총림(蔥嶺)에서 달마 대사를 만났다. 달마 대사는 직신을 지팡이에 꿰고, 발은 그냥 벗은 채로 가니, 송운이 “어디로 가시느냐”고 물었다. 달마 대사는 “서쪽으로 간다”며 사라져 버렸다.

송운이 양무제에게 이 사실을 고했다. 무제는 달마의 무덤을 파헤쳐 관을 열어보았다. 시신은 없고, 직신 하나만 있었다. 달마 대사의 부활을 알게 된, 무제는 군사를 파견해서 추격해 양자강 근처에서 발견하고 죽이려 했다. 이에 달마는 갈대를 꺾어서(折蘆渡江) 강을 건넜다고 전한다.

달마도는 모든 도석화(道釋畫)와 선화(禪畵)의 주제 가운데서 으뜸가는 주제로 많은 대가들이 즐겨 그린 그림이다. 일본에 특히 큰 영향을 끼친 조선 중기의 연담 김명국이 그린 '달마절로도강도(達摩折蘆渡江圖)'는 특히 달마도 계열의 최고의 걸작으로 손꼽힌다.

우리의 옛 기록에 의하면, 고려를 대표하는 화가였던 공민왕은 평소 승려사의 각운(覺雲)스님

박재완 기자의 불교사진이야기 아제아제바라아제



오래 전에 보았던 영화 '혹성탈출(2001)'에서는 원숭이가 인간을 영혼이 없는 존재로 본다. 영혼이 없는 존재로 몰린 인간의 괴로움은 '기막힘'이었다. 그 기막힘에서 탈출하기 위해 인간은 죽도록 고생한다. '탈출'은 영혼의 존재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그렇다. 그 영혼으로 인해 인간은 고단하다. 지금 당장은 '가을'이다. 차가운 바람은 뜨거운 눈물이 되고, 튀기는 낙엽은 움직일 수 없는 언어가 되는 시간. 고독한 시간은 신앙이 되고, 망설이던 시선은 철학이 되는 시간.

영혼을 가진 존재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될 새 없이 사는 것이다. 잠시도 될 수 없는 영혼, 영화에서처럼 영혼을 가진 우리는 죽도록 고생하고 있다. 온전한 영혼의 존재로 돌아가기 위해 이 가을을 죽도록 살고 있다. 돌담 위로 나비 한 마리가 날아간다.



편집국 사진부 차장

한국의 선시강상 조선 월저도안 선사 '설령대에서 읊어 뜻을 말함(雪嶺臺口號言志)'

탐진치로부터의 자유로움

絶頂人來少 (절정인래소) 寒雲伴此生 (한운반차생) 空階有鳥跡 (공계유조적) 靜室絕塵情 (정실절진정) 六字時時學 (육자시시학) 三乘日力行 (삼승일일행) 百年惟我意 (백년유이의) 何事苦經營 (하사고경영)

산꼭대기 찾아오는 이 적은데 찬 구름은 이생의 동반이네 빈 계단에는 새의 발자국 선방에는 속세의 정이 끊겼네. 육자진언은 무시로 배우고 삼승은 날마다 행하네. 백년이 오직 내 뜻대로 인데 무슨 일을 괴롭게 경영하리요

위의 시는 조선 후기 보편적인 수행방법인 삼문수업(三門修業)을 행하고 있는 월저도안(月渚道安; 1638-1715) 스님 자신의 일상을 특별한 수사 없이 담담하게 그리고 있다. 스님은 석가의 부절인 염송(拈頌)을 통해 삼매가

당장 이뤄진다고 그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인간과 천상, 보살의 종자를 심고 가꿀 수 있는 것이 <화엄경>이라고 그 가치를 부여했다. 염불에 대하여는 “참선을 못할 바에야 염불이 마땅하다”고 하여 정토는 하열한 근기를 위해 시설했으며 정토가 곧 선(禪)이라

는 사상을 보였다. 스님이 <염송집(拈頌集)>을 개간하고 염불책 1000권을 인출 배포한 것과 화엄종주(華嚴宗主)로 명성을 드러낸 것도 이러한 사상에 기초한다. 새들의 자취로 가득한 인적 끊어진 도량을 통해 선정 속에서 속세의 정이 끊겼음을 끌어 왔다. 육자진언은 염불 수행하는 것이며 삼승은 <법화경>의 성문·연각·보살의 방편으로 일승의 불로 돌아가는 것을 말한다.

일상을 참선과 간경·염불로 보내니 자연히 탐진치 삼독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이 출가의 본원이 이루어지니 할 일을 다 해 마친 무사인(無事人)의 여유가 시의 전반에 흐른다.

언지(言志)를 시의 형식에 사용하여 자신의 출가한 뜻을 제대로 보인 이 시는 자신의 수행법을 한변쯤 되돌아 보게 한다.



원법 스님(운문사·문학박사)

BCP공간살균기

NO! 이제부터 신종플루·새집증후군·세균걱정 끝!! 보이지 않는다고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델 : BCP

- 자연대류식 • 항균필터 • 이온세균시스템 • 물탱크용량 4L • 소비전력 43W • 분무량 500cc • 물량표시 / 물없음 알림 • 잠금장치 • 현재습도표시

공간살균시스템 50만원(월 살균제 5만원)

- 친환경 - 물을 전기분해하여 사용하므로 환경에 무해한 친환경 제품입니다. - 중성에 가깝고, 무색·무취로서 장비보존이 가능합니다.
- 안전성 - 식물첨가물로서 인체에 무해합니다. - 트리할로메탄 생성과 잔류성이 없어 안전합니다.
- 저비용 고효율 - 소모품 비용이 저렴합니다. - 모든 병원성 미생물에 대하여 강한 살균력을 갖습니다.

BCP공간살균기

본 제품은 염소가스의 국제환경 허용농도보다 100배 낮은 수준으로 하여 공간시설물에 정착되어 있는 세균, 바이러스 등의 각종 유기물과 공중부유균, 낙하균 등을 안전하게 분해 제거할 수 있도록 설계된 차아염소산 전용 공간살균기입니다. 가장 강력한 살균력과 안정성이 입증된 차아염소산을 3-5마이크론의 초미립자 분무하여, 실내공간의 대류에도 30분이상 부유하게 함으로서, 공기청정기(공기살균기)에서는 할 수 없는 인플루엔자바이러스(감염자)의 기침, 재채기 등에 의한 바이러스 감염을 즉시 차단할 수 있으며, 실내공간 시설물의 점착균 제거도 유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현불샵 02)2004-8215

불기 닦는일 힘드시죠!! 아주 쉽고 빠르게 닦이고 광택이 깨끗하게 친환경 다목적 금속광택제 이지 골드 EASY GO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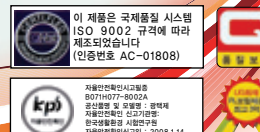
촛대, 향로, 위패, 유기, 제기, 놋쇠, 은, 동, 신주 등 모든 금속류

특징

1.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2. 타제품 보다 닦기가 쉬운 시간이 절반이상 절약됩니다.
3. 코팅 광택약이어서 흠집이 나지 않고 광택도 오래 유지됩니다.
4. 습기에 강한 광택이 장기간 유지됩니다.
5. 인체에 해롭지 않게 피부보호제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용량 : 525g

사용기한 : 10년



영일상사 홈페이지 참조 www.yiss.co.kr 문의 070-8262-9291, 010-5462-3620

농협 312-0029-1189-81 예금주 : 고태용

영일상사

생명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3년 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특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함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분 가 루 죽염 125g 40,000원 가 루 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죽염 230g 78,500원
- 2번 구분 보금형 민속죽염 1kg 35,000원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미용) 4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

※ 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64번지 www.msjy.co.kr